

## 국문초록

### 소토코모리, 일본 밖을 떠도는 젊은이들 : 시대의 폐색으로부터 탈출, 혹은 신자유주의의 희생양? | 권숙인

투고일자: 2011년 6월 15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이 글에서는 현재 일본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토코모리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소토코모리는 일본 밖, 특히 ‘아시아’로 나가 은둔(“진성 소토코모리”)하거나 장기간 아시아 각지를 떠도는 일본의 젊은이들(“침몰형 배낭여행자”)을 지칭한다. 어느 경우가 되었건 일본의 주류 사회, 혹은 규범화된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부한 젊은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주류 사회란 학력사회, 기업사회, 노동자 윤리로 짜인 전후 일본의 사회시스템을 지칭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토코모리가 되는 배경에는 청년기 이행에 실패하거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의 자폐적 도피, 방황하는 청년의 자아 찾기, 일본적 모더니티가 초래한 폐색, 신자유주의적 고용 구조의 확산, 일본사회의 관계적 특수성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물론 이들은 서로 겹치며 일부 일본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아시아를 찾게 했을 것이다. 흥미로운 지점은 이 젊은이들이 향하는 곳이 ‘아시아’란 점이다. 이때 말하는 ‘아시아’는 근대화가 덜 되었고 분위기가 느슨한 동남아시아의 도시들이며, ‘아시아’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일본적 모더니티의 안티테제로 설정된 ‘아시아’에서 치유와 구원을 구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태도에서는 분명 오리엔탈리즘의 혐의가 읽히지만, 소토코모리의 아시아 지향이 내포하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 또한 명백하다. 요컨대 90년대 이후 침몰형 배낭여행자의 등장과 최근 소토코모리의 출현은 한편으로는 불황과 구조조정 속에 일본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과 좌절에 덧붙여 전지구화가 일상이 되어 버린 고도 현대가 개인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성찰적 자아기획의 압력, 나아가 동아시아의 압축적 모더니티가 초래한 혼돈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소토코모리, 침몰형 배낭여행자, 청년기 이행, 일본적 모더니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성찰적 자아기획

### 공동화된 지방사회와 젊은 여성들 : 핸드폰 소설, 『소악마 아게하』, 그리고 ‘불황문화’ | 김효진

투고일자: 2011년 7월 1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논문에서는 하야미즈 겐로의 분석(2008)에 기대어, 2000년대 이후 핸드폰 소설과 호스티스 잡지인 『소악마 아게하』를 교외와 지방에 사는 젊은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향유하는 하위문화를 표현하고 있는 매체로 규정하고 이를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양상 및 지방의 하위문화로 잘 알려진 80년대 양키문화와의 관련 위에서 고찰한다. 소설 『연공』에서 등장하는 핸드폰에 관한 기술은 현대 일본 젊은이들에게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선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얼’하며, 특히 이런 핸드폰 소설은 도심 부보다는 교외와 지방의 표준화된 대형 쇼핑몰, 대형 서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지방사회의 공동화를 상징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역 앞 상점가로 대표되는 지방에 토대를 둔 불량문화로서 양키문화 또한 버블 붕괴 이후 지역경제의 붕괴와 함께 점차 그 힘을 잃어 갔고, 이는 지방 여성들의 유일한 취직처로서 호스티스 클럽의 대두를 가져왔다. 『소악마 아게하』의 인기로 대표되는 호스티스라는 삶의 방식은 젊은 세대의 도덕적 타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제적 토대를 상실한 여성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며, 이는 2000년대 이후 ‘불황문화’ 속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 특히 그 타격을 보다 강하게 받은 지방의 젊은 여성들이 만들어 낸 하위문화로 볼 수 있다. 핸드폰과 종이매체라는 테크놀로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외의 젊은 여성이라는 공통되는 사회집단에 의해 향유되는 매체로서, 핸드폰 소설과 『소악마 아게하』는 같은 하위문화의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핸드폰 소설, i-모드, 불황문화, 양키문화, 『소악마 아게하』, 교외, 지방, 공동화

### 무능현실 전능예술의 역설 : 오타쿠 문화와 무라카미 다카시로 본 일본 | 김민수

투고일자: 2011년 7월 4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일본 오타쿠 문화와 팝아트 작가 무라카미 다카시의 예술세계를 통해 오늘날 일본 대중문화와 예술이 처한 내면풍경을 조명하는 데 있다. 흔히 무라카미를 일컬어 “오타쿠 출신의 일본 팝아티스트”라 소개한다. 여기서 오타쿠의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어떤 성장 배경과 이론적 기반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작업이 지니는 비평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사회와 대중문화에서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무라카미는 1962년에 태어나 오타쿠 1세대로 성장했지만 그의 세계는 오타쿠의 세계와 구분된다. 그는 현대미술 팝아트와 사업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일본 오타쿠들의 문물과 행위를 상업화시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그는 오타쿠 작가로서 한계에 직면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통 일본화와 미술사를 제대로 공부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학위를 마친 후 미국 뉴욕에서 미술시장의 작동원리를 체험하면서 그는 우키요에, 망가, 애니메이션, 게임 등 일본 특유의 문화체계를 팝아트로 대변되는 서구 미술사의 문맥에 엮어 놓는 일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일본다움’의 확실한 원천이자, 새로움의 충격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자산이라 여겼다. 팝아트와 오타쿠를 결합한 전략 ‘포쿠’(POKU)와 소비문화의 덧없는 소모성과 알파함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위한 ‘수퍼플랫’(Superflat)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조되었다.

무라카미의 작업은 오타쿠 문화를 팝아트와 결합시켜 폭식적 욕망을 토해 내는 노골적인 발상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략 이면에는 오늘날 미술시장의 변화된 지배 구조가 존재한다. 이 점에서 그는 일본 오타쿠계의 문물을 현대미술계에 내다 파는 ‘수출업자’ 내지는 ‘브로커’와 같은 ‘업자’로 비난받기도 한다. 반면 무라카미는 오타쿠 문화를 패전

후 일본문화가 ‘국가’라는 중심 기반을 잃어 무능하게 된 문화로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팝아트와 결합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최근작에서는 무능한 문화의 극복을 넘어서 예술의 전능을 회복해 국가를 중심에 세우려는 ‘위험한’ 욕망이 발견되기도 한다. 현세의 이미지를 통해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나라 요시토모의 ‘조용한’ 팝아트와 구별되는 지점이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2년 환갑을 맞는 ‘아톰의 죽음’과 함께 전후 패전국의 열등의식과 무능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준 수많은 ‘희망의 추진체들’의 연쇄적 죽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 신화의 죽음’에 직면해 ‘잃어버린 20년’ 이후 일본 대중문화가 가야 할 희망의 공백을 무라카미 식의 ‘전능한 예술의 욕망’이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일본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치와 욕망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이 만들어 낸 거품경제의 물신적 상징이자 화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화가 죽어 버린 현 시점에서 일본의 희망을 추진할 새로운 문화적 상징은 무엇인가?

**주제어:** 무라카미 다카시, 오타쿠 문화, 팝아트, 미술시장, 잃어버린 20년, 신자유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거품경제, 아톰, 우주전함 아마토, 도라에몽

### ‘일본교’와 ‘스피리추얼리티’ : 현대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종교의 저울에 달아 본다 | 박규태

투고일자: 2011년 6월 6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19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고는 아마모토 시치헤이(필명 ‘이자야 벤다산’)의 천재적 발명품이라 할 만한 일본교(日本教)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특히 1995년 옴사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신종교(新新宗教)와 신영성운동(新靈性運動) 및 서브컬처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스피리추얼리티 담론을 중심으로 현대 일본사회의 종교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 일본인의 ‘정신’세계의 일단면을 엿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구체적으로 인간과 신 개념을 중심으로 일본교의 정의 및 특징을 개괄하면서 내셔널리즘을 매개로 하여 일본교와 일본인론을 결부시켜 고찰하는 한편, 마음, 치유, 자기 찾기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 일본사회의 스피리추얼리티 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이때 본고는 ‘종교’ 개념, 내셔널리즘, 아이덴티티, 소비재의 측면에서 일본교 담론과 스피리추얼리티 담론이 보여 주는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저울의 ‘평형’과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른바 ‘일본정신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일본교의 저울의 평형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혁명으로서의 스피리추얼리티 혁명이 얼마만큼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있다.

**주제어:** 아마모토 시치헤이, 일본교, 일본인론, 스피리추얼리티, 신신종교, 신영성운동

### 조선통신사를 통해 본 조·일 문화교류의 면면 | 송지원

투고일자: 2011년 6월 28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5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연구는 일본의 요청에 의해 조선왕실이 일본에 파견한 외교사절인 ‘조선통신사’(朝

鮮通信使)의 활동을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외교관계의 면면을 ‘문화교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300~500여 명의 사행(使行)원인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소요되는 긴 여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긴 여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조·일 간의 교류를 알려 주는 역사적 현장 그 자체가 되었고, 이들 통신사행이 남긴 수많은 사행록(使行錄)은 조선시대 외교관계의 생생한 현장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통신사의 활동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살펴본다면 그 교류 영역이 학문 전반에 걸쳐 있고 내용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활동 중에서도 조선이 일본에 전한 제사의례(致祭) 양상과 조선의 왕이 하사한 악기의 면면에 대한 것, 조선통신사를 위한 일본 가가쿠(雅樂)의 연주양상 및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남긴 춤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오례(五禮) 가운데 하나인 길례(吉禮), 즉 제사의례와 일본의 궁중음악인 가가쿠, 춤 등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일본의 국민(國賓)에 대한 의례(儀禮)와 조선통신사 활동의 면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섭렵해야 그 입체적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조선통신사의 문화교류 면면을 밝히고자 할 때 학제적인 통섭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선통신사’라는 존재는 거대한 집단이동(움직임)을 통해 단기간에, 정해진 코스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문화전파와 교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특수성을 지닌 집단이므로 기존의 시각에서 더 나아가 문화 비교학적 시야를 갖추고 연구해야 할 대상임에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세계 각지에 전파되고 있는 우리 문화와 비견되는, 조선시대의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펼친 문화활동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조선통신사, 문화교류, 제사의례, 궁중음악, 가가쿠, 한류

###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식민지 조선의 자기 표상: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을 중심으로 | 서재길

투고일자: 2011년 6월 27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7월 1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중반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 속에서 식민지의 자기 표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방송협회의 전국 중계방송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문화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뉴스와 강연 프로그램에서 주로 나타나는바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었던 조선의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 속에서 심상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의 자기 표상의 측면을 들 수 있다. 두번째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바 제국의 시선을 통한 식민지 문화예술의 오리엔탈리즘적 호출이라는 측면이다.

**주제어:** JODK, 조선방송협회, 자기 표상, 전국 중계방송, 오리엔탈리즘

**일본 전통 료칸·오카미의 현대적 모색과 도전 | 이은경**

투고일자: 2011년 6월 20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2011년 7월 21일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통적'인 모습을 현대 일본에서 가장 잘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져 왔던 료칸·오카미가 버블경제의 붕괴에 이어 여행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안에는 오로지 고객을 접대하는 자세와 마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대의 방침을 고수, 30년 이상 업계의 최고 자리를 유지하는 '가가야'(加賀屋)와 같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료칸의 대부분은 경영 압박과 고객의 다양화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단체여행의 감소와 소규모화, 미혼 여성 고객의 증가, 해외여행의 보편화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료칸은 전통 일본의 모습을 갖춘 비일상적인 공간이라는 종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그에 더하여 각자의 료칸 나름의 특화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는 소규모 개인 별장, 애완동물과 동반 숙박, 무장애(barrier-free)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이 특정한 목적에 맞춰 료칸을 특화하거나, 료칸의 기본 요소인 음식이나 건물 등을 개성 있게 준비하는 방식, 그로부터 더 나아가 이전 료칸에서 볼 수 없었던 이벤트나 장식 등을 통해 비일상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혈통에 의한 세습이라는 전통적인 료칸의 경영 방식 자체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으로 보고, '오카미'란 진취적인 여성에게 최적의 직업이며 이를 교육을 통해서 배출하겠다는 의도에서 설립된 '오카미주쿠'(女将塾)는, 소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온 세습 경영뿐 아니라 진취적인 여성에게 적합한 직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생기를 잃어 가는 지방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료칸 오카미로 진출하여 료칸을 지역 활성화 운동을 위한 공간적·경제적 거점으로 삼았던 아마네 다에의 사례는, 기존의 오카미에게 기대되어 왔던 소위 가장 전통적이고 일본적이고 또는 여성적인 이미지를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고 여겨진다.

**주제어:** 전통, 오카미, 료칸, 오카미주쿠, 지역 살리기

**영문초록 Abstract****'Sotokomori': Escaping from the Blockage of Japanese Modernity or Scapegoats of Neoliberalism? \_ KWEON Suk In**

This paper reviews and explores the group of young Japanese people who are referred to as 'sotokomori'. Sotokomori are the young Japanese who migrate out of Japan into 'Asian' cities in order to lead an idle and secluded life ("genuine sotokomori"), or those who wander about Asian countri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unken backpackers"). Whether they are 'genuine sotokomori' or 'sunken backpackers', sotokomori are the people who either rejected or could not adjust to the way of life that has been established as 'normal' in the post-war Japanese society. There are several social and personal backgrounds for them to become sotokomori; failure to bridge oneself from school to work environments, falling behind in competition, the quest for self-identity, suffocation from Japanese modernity, expanding neoliberal employment structure, and stress from personal relationships. What is interesting about sotokomori movement is the fact that their destinations are within 'Asia', especially the towns and citie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are less modernized and more 'relaxed' in the atmosphere than Japan. Asia does not include Japan by definition of this context. There is a sense of orientalism among those young Japanese people who head out to the Asian cities in search of emotional healing and psychological salvations from the Japanese society, for these 'Asian cities' supposedly symbolize the antithesis of Japan's modernity.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sunken backpackers' since the 1990s and the recent rise in the number of sotokomori can be best understood as the epitome of their anxiety and frustrations toward Japan's prolonged economic recess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which evidently have created highly-elevated pressure for reflexive project of self-making as well as the chaos caused by the compressed Japanese modernity.

**Keywords :** sotokomori, sunken backpackers, transition to adulthood, Japanese modernity, neoliberal restructuring, reflexive project of self-identity

**Young Women in the Empty Country: Cellphone Novels, *Koakuma Ageha*, and the 'Depress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 \_ KIM Hyo Jin**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Hayamizu's analysis on cellphone novels(2008), I examine cellphone novels and *Koakuma Ageha*, a magazine specialized for 'hostess', as the media that reflects the subculture as well as the everyday life of the young women in the secluded suburbs in the 2000s. And I will also address the development of new communication and how the influence of Yankee culture of the 80s are represented in those media. *Koizora*, one of the most famous cellphone novels, describes the use of cellphones in a very realistic manner, faithfu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through cellphone usag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ellphone novels are more popular in large-scale shopping malls and bookstores in the suburban areas than they are in the urban centers, alluding its relations to the depressed local economy after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The decline of the local economy has led to both the weakening of Yankee culture as subculture as well as the emergence of hostess clubs as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young women in the suburbs. As shown in the analysis of *Koakuma Ageba*, some young women in the suburbs do not see much choice but to become hostess in order to make a living, due to the ever-shrink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popularity of *Koakuma Ageba* reflects the changing nature of suburban subculture that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depression after the 1990s. In spite of the apparent differences in technology—cellphone and prints—, both cellphone novels and *Koakuma Ageba* deal with the same subculture shared by the young women residing in the empty suburbs and country areas.

**Keywords** : cellphone novels, i-mode, depression culture, Yankee culture, suburbanization, country, doughnut phenomenon

#### A Paradox of Impotence Reality and Almighty Art: Japan as viewed by Otaku Culture and Takashi Murakami \_ KIM Min S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cover the inner scape of Japanese art and popular cultur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Japanese Otaku culture and pop artist Takashi Murakami's world. Murakami is known as "a Japanese pop artist who stemmed from Otaku". This paper asks various questions like, what is the meaning of Otaku in relation to Murakami? What kind of backgrounds, strategies, tactical issues are activated in his artworks? What is the critical meanings of his works? What kinds of connections can we find between Murakami's works and Otaku culture? And finally, what do these inquiries denote on 'Two Lost Decades' in Japanese society and popular culture?

Murakami was born in 1962 and grew up as the first generation of Otaku. But his works differ from those of Otaku. He bridges the worlds of pop art and business and he is well-know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Japanese Otaku culture and practice. After graduating from Tokyo University of the Arts(TUA), he spent some time in New York in 1994 where he learned about the art industry and how to utilize his knowledge of Western art and integrate it into Japanese traditional arts like Ukiyo-e as well as the contemporary arts like manga and anime. He also came to a resolution that the Otaku culture should be the source of unique 'Japanese-ness' that brings about the new phenomena. In doing so, he developed the strategy of 'POKU'—combination of Pop art and Otaku culture—along with the concept of 'Superflat'.

Murakami's artworks are characterized by his quite explicit statement that captivates the market. Behind his entrepreneurial march towards the contemporary art market, there is an ongo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art world. This is the reason why he has been criticized as a broker or an exporter of the Otaku culture who sells products to the contemporary art world. On the other hand, Murakami considers the Japanese Otaku

culture as impotent. Ever since the defeat in the WWII weakened Japan as a nation, the Otaku culture has provided a kind of psychological refuge. His objective is to overcome its impotent culture by combining it with the Pop art. In addition to thi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he allusively desires to place 'Japan as a state' at the center of this 'recovery process' by reestablishing the omnipotence of art through his latest works.

The year 2012 will mark Atom's 60th birthday. However, the recent Fukushima Nuclear Accident has triggered not only 'the death of Atom' but also 'the death of hope' within the Otaku culture, which have helped the Japanese people to overcome the postwar impotence. In this sense, Murakami has pursued his artworks to obtain an ultimate power to redeem the vacuum of hope in the era of prolonged Two Lost Decades. Nevertheless, his desire might not be fulfilled with his entrepreneurial success because such success is inevitably a part of side-effects of the present-day neoliberalism, of which the Japanese society must find its way out, in order to overcome the collapse of the bubble-economy. What, then, could be the new cultural symbol of hope that drives Japan throughout the era where the myth is already dead?

**Keywords** : Takashi Murakami, otaku culture, Pop art, art market, two lost decades, neoliberalism, bubble economy, Fukushima nuclear accident, Tetsuwan Atom, Uchusenkan Yamato, Doraemon

#### 'Nihonkyo' and 'Spirituality': Weighing 'Inner Space'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on the Scale of Religion \_ PARK Kyu Ta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nner space' of the contemporary Japanese people through the analyses of the various discourses of "Spirituality" in terms of New-New-Religion, New Spiritual Movement, and subcultural phenomena from the 1970s, especially after the Aum affair in 1995. I begin the analysis with the concept of "Nihonkyo" (Japan as a religion), which is a counterintuitive invention by Yamamoto Shichihei. First of all, I will present a general survey of the definition and distinctions of Nihonkyo based on the notions of human and "kami"(god). And then, I will attempt to combine the discourse of Nihonkyo with "Nihonjinron" (Japan's dominant identity discours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ism. I will then explore the nature of the world of "Spirituality" in the contemporary Japanese society in relation to three key concepts, such as Kokoro (mind), Healing, and Pursuit of Self. Furthermore, I will try to present a "psychoanalysis on Japan" or "analysis on the Japanese Mind" in terms of "balance" and "subject", paying special attention to some similarities between Nihonkyo and discourses of Spirituality in the aspects of religion, nationalism, identity, and consumer goods. In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s the view of not only the balance of the scale in Nihonkyo, but also the possibility of Spiritual Revolution as a kind of individual revolution.

**Keywords** : Yamamoto Shichihei, Nihonkyo, Nihonjinron, spirituality, New-New-Religion, New Spiritual Movement

### Korean Diplomatic Missions(朝鮮通信使) to Japan : Aspects of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_ SONG Ji Won

With emphasis on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Chosŏn Dynasty and Tokugawa Bakufu, this article looks at the activities of the diplomatic missions dispatched by the Chosŏn Dynasty to Tokugawa Bakufu(Chosŏn t'ongsinsa朝鮮通信使, hereafter t'ongsinsa) on Japan's request and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states. Dispatched twelve times until 1811, the Chosŏn diplomatic missions, called t'ongsinsa, usually consisted of 300 to 500 members per mission and completed long itineraries taking five to ten months.

T'ongsinsa's extensive itineraries and their travels vividly provided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inter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ir activities in Japan also ranged over a variety of scholarly fields as well as general cultural diffusion, including sacrificial rituals introduced from Korea, music instruments gifted by the Korean kings, ceremonial music played by court musicians in Japan for Chosŏn envoys, and the dances introduced by Koreans, to name a few. Studying such cultural fields requires interdisciplinary knowledge in some special fields such as the sacrificial rituals of the Chosŏn dynasty, the court music [gagaku雅樂] of Japan, and the protocol of Japan for state guests as well as t'ongsinsa's activities per se.

Traveling to Japan along the fixed routes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e t'ongsinsa, a relatively large group of people,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cultural interchange between the two states. The topic of t'ongsinsa should thus be approached from a comparative cultural perspective.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examines the t'ongsinsa's cultural activities in Japan, which can be regarded as a sort of earlier version of hallyu(韓流), a term expressing the popularity of the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n almost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se days..

**Keywords :** Chosŏn t'ongsinsa朝鮮通信使, cultural interchange, sacrificial rituals, court music, gagaku雅樂, hallyu韓流

### The Electric Wave Networks of the 'Japanese Empire' and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 Focusing on the 'Nation'wide Relays by the Korean Broadcast Association in the mid-1930s \_ SEO Jae Kil

In this study, I examine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thr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the 'Nationwide Connections', a radio network of the 'Japanese Empire' that was broadcasted by the Korean Broadcast Association during the colonial occupation. The self-representation of colonial Korea has two broad meanings in terms of its culture and politics. First is characterized by the emphasis on the increasing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supply base for the expansion to 'the Continent,' which was mainly represented by the news and educational programs. Second is the recalling of Korean traditional arts, which was broadcasted mostly through the entertainment program as a part of Orientalistic approach by the 'Empire'.

**Keywords :** JODK, Korea Broadcast Association, self-representation, Nationwide Relays, orientalism

### Contemporary Changes and Challenges of Japanese Traditional Ryokan and Okami \_ LEE Eun Gyong

This study examines how ryokans and okamis, which have been known as the preserver of the 'traditional' image of Japan at its best, have coped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tourism since the collapse of bubble economy in the 1990s. One example is 'Gagaya'(加賀屋), a ryokan that has maintained highest credibility in the industry for over 30 years, which continues to adhere to the long-lasting policies of putting the guests' satisfactions as the top priority. At the same time, most of successful ryokans today, under highly competitive environment, are also diligent in their efforts to respond flexibly to the varying needs of the ever-diversified guests. Faced with changes such as the de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group tour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 women, and the growing popularity of overseas travels, individual ryokans attempt to specialize in their own ways to provide the most suitable environments for their guests without compromising the people's wishes to stay at a traditional Japanese-style accommodation. Each ryokan has its features; while some provide small-sized personal villa, others offer lodging with pets; some are equipped with barrier-free or universal designs, and others captivate their guests with unique services in their food and room environments; some attempt to differentiate themselves through special events and unique decorations.

Traditionally, ryokans had been operated by Okamis, a line of succession from mothers to their daughters. But now it has been realized that this tradition and the related practice of operations themselves were the reasons why many ryokan have fallen into the management crises. 'Okamijuku'(女将塾) was founded in order to break from such tradition and educate the potential Okamis, whom they consider to be the ultimate occupation for progressive women, and Okamijuku i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attempt to train for a 'suitable occupation' for any progressive woman. One Okami, Yamane Dae, utilized her ryokan as spacial and economic bases for the surrounding community and salvaged not only the ryokan itself but also the economically declining community. Her effort is considered to be a noteworthy attempt that pioneered a new area of ryokan operation, going beyond both the image of traditional Japanese women and the conventional okami-figures.

**Keywords :** tradition, okami, ryokan, okamijuku, village making